

45. 신뢰함으로 받는 결실

신앙고백

찬 송 : “구주 예수 의지함” (찬송가 542장)

기 도 : 말은이

말 씬 : 예레미야 17:5-8

말씀묵상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믿는 자’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려 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데 정신이 팔리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불신앙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1.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다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시간에 사람을 찾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도 소홀해지며 마침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영성’이 변질 됩니다. 일이 잘되면 자만심과 교만이 싹트게 되고, 일이 안되면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2.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그 강 물줄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잎이 늘 푸르며 청청합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맺는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가뭄이 다가옵니다. 경제적 위기, 가정의 풍파, 관계의 악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적용

1. 내가 생활 속에서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말해봅시다.
2. 예레미야 17장 7절을 암송합시다.

둔전소식

둔전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일헌금

이번 주 주일헌금으로 캄보디아 선교(임만호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2. 성경통독 강해

임창세목사의 성경통독강해를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주일은 제외)

3. 코로나 종식과 교회개혁, 예배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종식과 교회개혁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해서 하루 10분씩 전교인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목장별 전화 및 화상심방

매주 화요일(1지역)과 목요일(2지역)에 목장별로 전화심방과 화상심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5. 성탄절 세례 및 견신례 신청

성탄절에 세례와 유아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교역자들과 신청하기 바랍니다. 세례교육: 11월 29일(주일)부터 시작합니다.

6. 안수집사 모임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7. 2021년 부서별 예산안

각 교육부서 및 사역팀, 부서별로 2021년 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12월 첫째 주일(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대상: 교육부서, 성가대, 찬양팀, 사역팀

8. 2021년 교회요람 준비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가 달라진 분들은 목자 혹은 교역자들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 헌금안내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51-1098-1626-13 예금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둔전교회

♥ 교우소식

현물 - 최진수, 최영란 집사 가정에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둔전교회를섬기는이들

창립1904년

담임 목사 : 임창세

협동목사 : 윤성민

원로장로 : 김효영 이용준

부목사 : 양미화 천광우

지 휘 자 : 이영준

교육전도사 : 신새벽

반 주 자 : 홍지에 임귀희 임미리 임정임

김성혜 이하림

The Sixth Year for Vision 120
for Mother Church in Sung Nam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눅 5:4)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한국기독교장로회
1904
DOONJEON
Doon Je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ok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61-1

☎031)754-8600 Fax 031)757-9191 목양실☎ 031)751-7230

www.doonjeon.kr

인도 : 임창세 목사

※ 표는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기원	인도자
※찬송	33장 다같이

2·3부

예배의부름	인도자
※임재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교독문	74. 마태복음 5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50장 다같이
기도	1부:박명원 권사 2부:정순진 권사 3부:이하림 청년
성경봉독	요한복음 2장 13-22절(신약145) 인도자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영상
말씀	주만 바라볼찌라(12) 임창세 목사 아버지의 집

11월 봉사위원

안내위원	1부 : 2부 :.	다음 주일 예배 기도
헌금위원	1부 : 김정예 2부 : 신연호 안상분	1부 : 정영숙 권사 2부 : 이미숙 권사 3부 : 성정민 청년
식당봉사	이번주 : 다음주 :	

결단찬양	보혈을 지나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송영	부르신 곳에서	다같이
※축도		임창세 목사
□ 3부 설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마5:10-12)	양미화 목사

수요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22절】

¹³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¹⁴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¹⁵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¹⁶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¹⁷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¹⁸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¹⁹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²⁰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²¹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²²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 추수감사헌금

임창세, 주리애, 강경희, 안혜자, 강복순, 강윤지, 박형순, 권영희, 김동수, 임완순, 김동환, 이경미, 김상우, 정경혜, 김상호, 장명자, 김영선, 김옥임, 김용수, 이미숙, 김재정, 김정규, 정영숙, 김정은, 김주는, 김현섭, 김효영, 정순진, 나차금, 남영옥, 남효정, 박명원, 윤영임, 박상민, 김영옥, 박심원, 윤관순, 박옥년, 박정순, 박정아, 박춘화, 백세완, 김금란, 서인순, 손미자, 손영애, 신연호, 안상분, 신영숙, 신한례, 안순조, 안홍옥, 양미화, 양웅모, 김영주, 우순희, 유인숙, 윤성호, 윤종찬, 윤희자, 이만순, 이복덕, 이복음, 이상설, 이순자, 박재락, 이영희, 이용준, 김향순, 이인임, 이해정, 이 희, 임연자, 임경섭, 임근실, 임영희, 임완민, 박삼화, 임정임, 전명숙, 전옥자, 정광옥, 정귀자, 정장환, 정종언, 유향순, 조미라, 조병운, 박영애, 조점동, 황영옥, 주경숙, 주영순, 주종찬, 천광우, 최광순, 최미연, 백승환, 최운교, 최진수, 최영란, 최충균, 송애련, 추사순, 하연주, 하영식, 장신자, 한규봉, 한춘우, 무명6
--

목장모임보고						
◆ 성서일독 통독자 명단(17주) 80명						
강복순	곽삼화	김금란	김남일	김명숙	김영선	김영옥
김영주	김예진	김예찬	김용수	김재정	김정예	김향순
김현섭	김효영	나차금	남영옥	남효정	박기자	박심원
박영애	박옥년	박정아	박춘남	서소영	서인순	석장환
신연호	신영숙	안상분	안순조	양미화	양웅모	우순희
우희연	유인숙	유향순	윤종찬	윤희자	이경미	이만순
이말자	이미숙	이복덕	이복음	이상설	이순자	이용준
이인임	이혜정	이 희	임근실	임신자	임완민	임한옥
장영미	전명숙	전상기	전옥자	정광옥	정귀자	정순진
정영숙	정장환	정재하	정정희	주리애	주영순	주종찬
최광순	최미연	최영란	최운교	최인선	최진수	하연주
한규봉	홍지현	황영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119:105)						

삶의 옥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6:20)

◆ 십일조

강윤지, 강인식, 심은영, 강호성, 김지운, 김수매, 김용수, 이미숙, 김종순, 남효정, 박명원, 윤영임, 백승환, 최미연, 서인순, 신한례, 윤종찬, 임신자, 이창우, 정지영, 전상기, 정귀자, 정재현, 최광순, 최진수, 최영란, 추사순, 홍지현

◆ 감사헌금

박상민, 김영옥, 손미자, 유병희, 윤종찬, 이정훈, 임지영, 정귀자, 정영숙, 무명1

◆ 선교헌금

무명1

◆ 건축헌금

손미자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365,000	3,801,200	270,000	6,546,000	50,000	10,000

• 온라인헌금자 명단은 지난주일 오후2시까지 입금자입니다.
그 이후 헌금하신 분들을 다음주에 표기됩니다.